# 부모별거 초등학생의 별거 경험 및 양육요인에 따른 사회·정서적 적응력 연구*

- 연변 조선족 아동과 한국 아동의 비교 -

# Separation from Parents : Socio-Emotional Adjustment of Korean-Chinese Elementary School Children in Yanbian*

- Comparison with Korean Children -

천희영(Hui Young Chun)[1]
정계숙(Kai Sook Chung)[2]
옥경희(Kyung Hee Ok)[3]
황혜정(Hye Jung Hwang)[4]
최성학(Cheng Xue Cui)[5]

## ABSTRACT

In this comparison of the relative effects of children's separation from their parents, socio-emotional adjustment was assessed by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and emotional intelligence. Subjects were 502 elementary school children separated from their parents(162 in Yanbian and 340 in Korea) and their caregivers. Data analysis was by frequency, t-test, and multiple regression controlled by gender and grade in school. Caregivers living with children and their parenting efficacy were significant variables for the development of socio-emotional adjustment in Korean-Chinese children in Yanbian, but reasons for parent-child separation, caregivers'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characteristics, and SES were significant variables for children in Korea. Implications are that regional differences should be considered in understanding and supporting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socio-emotional adjustment.

* 이 논문은 2004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4-042-C00143).

[1] 고신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2] 부산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3]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4] 경기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5] 연변대학 사범학원 부교수

**Corresponding Author** : Kai Sook Chung,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Pusan 609-735, Korea
E-mail : kschung@pusan.ac.kr

**Key Words** : 부모별거(parent-child separation), 별거경험(separation experiences), 양육요인(child-rearing factors), 사회·정서적 적응력(socio-emotional adjustment), 연변 조선족 아동(Korean-Chinese children in Yanbian).

# I. 서 론

중국 길림성에 위치한 연변 조선족 자치주는 1952년에 자치 승인을 받았고, 2001년 현재 총 인구 약 218만 명 중 조선족이 38.4%인 84만 명 정도로서 중국 내 조선족의 최대 거주지이다(최성학 · 김철화, 2004). 연변 조선족의 가족구조는 1990년대 한중 수교 후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한국과의 활발한 교류로 부모의 한국 취업이 늘어나면서 한 부모나 양부모가 없는 결손가정 학생이 2001년 48.7%, 2002년 51.1%, 2003년 58.8%로 크게 증가하였으며(리봉월, 2003), 2004년 연길시 초 · 중등학교 학생 중 40.6%가 취업 출국에 의한 결손가정 학생으로 밝혀져 전체의 9.3%에 해당하는 이혼 가정의 학생 보다 그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최성학 · 김철화, 2004).

가족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연변 조선족 아동들은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연길시 교육과학연구소의 통계자료(2003)에 의하면, 연길시의 한 조선족 소학교 아동들의 심리건강 검사 결과, 결손가정 자녀들은 학습초조, 신체화, 자책, 과민 등에서 일정하게 문제를 보인다고 한다. 이 자료에서는 심리적 문제가 나타나는 주요한 원인을 결손가정 학생들이 부모와 장기간 분리되어 애정, 안정, 소속, 및 인정에의 욕구가 좌절된 상태에서 필요한 심리적 조절을 받지 못한 데 있다고 보고, 그들에 대한 적절한 생활환경과 교육적인 중재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부모별거 아동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는 연변 조선족 사회와는 대조적으로 이혼율의 증가와 밀접히 관련된다. 우리나라 기혼여성들의 이혼율은 1990년대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2002년 한 해에 발생한 이혼건수는 지난 47년간 10배나 증가하였으며 이혼율의 증가는 OECD국가 중 최고를 기록했다고 한다(통계청, 2002a). 2002년 전국보육실태 조사결과에 의하면, 전체 아동 가운데 부모가 아닌 조부모나 친인척에게 맡겨진 아동의 비율이 지역에 따라 1.7%에서 5.7%로 나타나고(통계청, 2002b), 농촌거주 아동 중 10% 이상이 한 부모나 조부모와 살고 있다고 보고되었다(중앙일보, 2003). 이러한 추세는 2000년 현재 미국 아동의 8.4%가 부모가 아닌 친척에 의해서 양육되고 있다는 미국 사회에서의 증가 추세(Kropf & Burnette, 2003)와도 유사한 것이다.

이처럼 연변 조선족 사회와 한국 사회에서 부모별거 아동의 증가 주요 원인이 다르다고 해도, 부모별거 가족의 증가는 아동의 발달문제에 대한 우려 때문에 두 사회 모두에서 주목받고 있다. 부모라는 존재는 사회화 과정의 기본 조건 중의 하나이므로 가족구조보다 가족관계의 질이 자녀발달에 더 중요함(정옥분, 2002)에도 불구하고, 부모 중 적어도 한사람이 부재하는 결손가정은 자녀들의 발달과 적응이 불리한 조건이다. 부모와의 별거는 아동의 지적 능력과 학업성취 뿐만 아니라 내면적, 외면적 부적응 행동과 정서장애의 발달, 사회적 능력 등 사회 · 정서적 측면에서의 발달에 다양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예; 리철민 · 리홍길, 2004; 이은경 · 박성연, 2004; Hetherington, 1989), 결국 부모별거 아동은 사회·정서적 적응력이 떨어질 위험성이 높

다고 할 수 있다.

사회 · 정서적 적응력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아동이 성인이나 또래와의 관계에서 사회적 · 정서적으로 만족스럽게 상호작용하고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능력(Katz & McClellan, 1997)이므로, 복합적 능력으로서의 정서지능(Goleman, 1995, 1998)과 상통한다. 아동이 자신의 감정상태를 인식할 뿐 아니라 이를 조절할 줄 알고, 상대방의 사고, 감정, 의도 등을 이해하고 공감하여 기초적 수준에서 적절하게 대처하는 능력을 갖는 것은 바람직한 인간관계 형성에 필수적이다(Honig & Wittmer, 1994; Parker & Asher, 1987; Patterson, Kupersmidt & Griesler, 1990). 정서적 적응력의 부족은 개인의 심리적 기능이나 자제력을 약화시키며, 특히 아동의 경우 학업 부진, 또래관계에서의 문제, 사회 적응상의 행동문제들을 유발시키기도 한다(김경회, 1998; 우수경 · 최기영, 2002; Cassidy, Parke, Butkosky & Braungart, 1992). 따라서 높은 정서지능은 곧 높은 사회 · 정서적 적응력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다.

반면, 사회 · 정서적 적응력의 역기능은 문제행동으로 나타난다. 사회·정서적 적응력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일상생활에서의 행동이 발달적, 사회적 규범에서 벗어나 부적응적 양식을 띠면서 내재적 문제와 외현적 문제행동을 보이게 된다. 이런 아동은 신체적, 사회적, 개인적 상황의 여러 측면에서 적응상의 문제를 나타내어 장기적으로 청년기나 성인기에 부적응(Parker & Asher, 1987; Patterson et al., 1990)이나 반사회적 행동 및 범죄행위로 발전되는(Garbarino & Vondra, 1987) 등 자신의 복지에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된다(황혜정, 2005).

생태학적 모델(Bronfenbrenner, 1979)의 중앙에 위치한 아동의 사회 · 정서적 적응력 발달에 영향 미치는 요인들은 생태체계에 따라 다양하다. 본 연구는 부모별거 가족 아동의 사회 · 정서적 적응력 발달에 초점을 두고자 하므로 부모별거에 따른 미시체계로서 아동에 제공되는 별거 경험과 주양육자에 의해 제공되는 양육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부모와의 별거를 경험하는 아동들의 수가 적지 않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시점에서, 결손 원인을 고려하지 않고 가족구조적 관점에서 아동의 발달과 적응을 다루는 것은 부모와의 별거라는 경험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오승환, 2001). 따라서 부모별거 아동에 관한 연구에서는 부모와의 별거 원인을 의미있게 살펴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이혼보다는 사별에 의해 별거를 경험하는 편부모는 심리적 지원 · 공간 · 도움을 더 많이 받게 되고 적응을 쉽게 함으로써(오은순, 1997) 아동은 보다 안정된 상태에서 양육될 수 있으므로, 이혼, 사망 또는 취업 등의 부모별거 원인에 대한 아동의 인식에 따라 별거상황에서의 사회적응력은 다를 수 있다.

한편 부모 별거를 경험하는 시기의 아동의 발달 정도에 따라서 적응문제의 출현은 차이가 있다(주소희, 2002; Demo & Cox, 2000; Hetherington, 1989). 이혼가정 아동의 연구에 의하면, 학령기 아동도 학령전기 아동과 마찬가지로 부모이혼에 따른 어려움을 느끼지만, 저학년 아동은 부모의 이혼에 대한 대처기술의 부족으로 적응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별거하게 된 한 부모에 대해 심각한 허탈감을 느낀다(오은순, 1997).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이나 청소년은 이혼 상황에서의 대처기술을 소유하고 가정 밖의 심리적 지지 체제를 잘 이용하여 정상가정의 아동보다 더 조숙하고 성적이 나아질 수 있으나, 자신의 신체적 · 정서적 변화 시기에 부모의 지원이 부족할 경우 적

절히 성숙할 수 없게 된다(Altshuler & Ruble, 1989). 우리나라의 경우, 부모 이혼 시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적응을 잘 한다(정현숙, 1993)와 연령이 높을수록 적응을 잘한다(오은순, 1997)는 상반된 결과가 보고되었다. 따라서 부모 이혼에 의한 부모별거 경험 시작 연령에 따른 적응 차이에 대해서는 결과가 일관되지 않고 있다.

아동의 부모별거 경험 시작 연령뿐 아니라 별거경험의 경과시간, 즉 별거기간 또한 적응에 차이를 가져오는 변인으로 작용한다(오은순, 1997; Amato & Keith, 1991; Kelly, 1989). 부재 부모와 자주 만나지 못하는 아동은 우울증과 같은 정신병리학적 증세(Kelly & Wallerstein, 1979)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이혼 후 경과기간에 따라 아동이 받는 영향은 다른 양상을 보인다. Hetherington (1989)은 부모 이혼 후 아동이 사회적 · 인지적 미숙한 놀이 행동, 충동적 · 반항적 · 공격적 행위, 의존적이며 불안 · 우울, 학습능력 저하와 같은 부적응을 보이며, 특히 남아에게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는데, 이혼 후 2년경까지 지속되나 4~5년이 지나면 대부분 편부모 가정에 익숙해지며, 일부 아동은 6년 정도가 지나면 안정된 감정 상태가 된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의 아동과 청소년은 부모의 이혼 후 기간이 길수록 사회적 응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정현숙, 1993).

또한 자녀 양육에서의 부모역할 전문화, 별거상황에서 양육 부친이나 모친, 또는 양부모 별거 시의 양육자가 겪는 변화(오은순, 1997)를 고려할 때, 아동이 별거하고 동거하는 부모나 양육자에 따라 적응과정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부모별거 아동의 양육요인으로서 주 양육대리자의 개인적 특성, 양육행동,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효능감 변인 등은 부모별거 아동의 사회·정서적 적응력 발달과 관련하여 주요 보호요인이나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

주 양육자의 개인적 특성 즉, 양육자 유형, 성, 연령, 교육수준과 경제적 수입 정도는 아동의 사회·정서적 발달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먼저 양육자 유형과 관련하여, 편부는 자녀의 정서발달을 함양하는 것을 가사처리나 자녀를 즐겁게 해주는 일보다 더 어려워하며 자녀의 생활에 개입을 별로 하지 않거나(Demo & Cox, 2000) 학교생활에 관심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Downey, 1994), 아동의 정신건강이나 사회성 발달에 더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반면 친척에 의해서 양육되는 아동들은 부모와 살고 있는 아동들보다 학업성적에서 취약하고, 문제행동을 더 많이 보이고 부정적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한다고 한다(Dannison & Smith, 2003; Dubowitz, Feigleman, Harrington, Starr, Zuravin & Sawyer, 1994; Edwards, 1998; Sawyer & Dubowitz, 1994; Smith, Dannison & Vacha-Haase, 1998). 옥경희(2005), Dubowitz와 동료들(1994), Dubowitz와 Sawyer(1994) 등은 조부모나 친족에 의해 양육되는 아동의 학교생활과 학업, 사회적응력 발달이 양부모의 양육을 받는 아동 보다는 부정적이지만 타인에 의한 대리양육을 받는 아동보다는 더 긍정적이라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조부모의 양육이 손자녀의 학업 부적응이나 문제행동을 결과한다(Pruchno, 1999)는 상반된 연구결과도 있다. 또한 시설 아동의 경우, 동거인인 시설의 보육사는 높은 이직률과 보육사 대 시설 아동의 높은 비율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부모부재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의 완화역할을 하기 어렵고, 그 결과 양부모의 지속적인 양육과 보호를 받는 아동에 비해 부정적인 사회·정서적 발달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예; 유안진 · 한유진 · 김진경, 2003; 현은민 · 박혜영, 2005 등).

주 양육자의 성 변인은 아동 성과의 일치 측면에서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진 바 있다(이은경 · 박

성연, 2004; Amato, 1993). 자녀 양육에 대한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대한 이분법적 사고가 보다 개방적이고 동반자적인 사고로 전환되고 있으나(한경혜, 1997), 아직 자녀양육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이 여성에게 있다는 가치관이 팽배하다(황혜정 · 김경희 · 이혜경 · 어주경 · 나유미, 2003)는 점을 고려할 때, 부모와 별거한 아동을 양육하는 주 양육자의 성은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혼가정 아동의 탄력성에 양육부모의 성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도 발견된다(김승경 · 강문희, 2005).

주 양육자의 연령, 교육수준과 경제적 수입 정도는 양육태도와 부모역할수행 결정에 관련되므로(이선경 · 이재연, 1998; 이은경 · 박성연, 2004), 아동 사회화의 가치관이나 아동과의 상호작용 방식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체적으로 노쇠하고 아동발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조부모의 경우 부모와의 양육태도와 양육실제의 차이로 인해 어린 아동이 정서적 적응 문제를 겪을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경제적 결핍의 관점에서는 한 부모 가족 아동의 적응과 발달 문제는 부모의 낮은 수입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Klein & Beller, 1988). 이은경 · 박성연(2004)은 양친 부재 가정의 아동이 정서 및 행동 문제를 더 많이 보인다는 결과를 근거로 주 양육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중요성을 지적하였다.

주 양육자의 양육행동과 같은 양육실제 및 양육스트레스나 양육효능감 등의 심리적 양육환경은 아동의 사회·정서적 적응력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미시체계 내의 주요 요인이다(박주희, 2000; Darling & Steinberg, 1993). 일반적으로 바람직한 양육행동은 온정적이고 일관적이며 적절한 통제를 포함하는 것으로 아동의 사회적 적응을 돕고 아동의 행동을 최적으로 발달시키는 요인이다(예; Miller et al., 1993, 이선경 · 이재연, 1998; Rohner, 1986). 그러나 비 반응적이며 거부적인 양육 행동은 아동으로 하여금 사회적 관계에 대한 분노와 적의적인 태도를 발달시켜 동료와의 상호작용에서도 적의적, 부정적인 반응을 드러내게 한다(예; Mills & Rubin, 1993; Putallaz & Heflin, 1990 등). 부모의 양육과 자녀의 정서지능을 연구한 선행연구들에서도 부모가 애정적-자율적 양육태도를 보일 때 아동의 정서지능이 높게 나타났으며(안현지, 1999), 하위요인인 정서인식 및 표현, 감정이입, 정서조절, 정서활용 능력과 높은 상관이 있었다(박영애 · 최영희 · 박인전, 2000; 오영미, 1997; 이광자, 1997). 반면, 부모가 자녀의 정서표현에 무관심하고, 자녀의 감정표현 방식을 비난하면서 자녀의 요구를 무시할 경우, 아동의 정서지능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Goleman, 1995).

심리적 양육환경으로서 양육자가 지각하는 양육에 따른 스트레스는 부모에게 심리적 고통을 유발하고, 이 같은 양육 상황에의 적응 실패는 자녀의 적응과 관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조가원, 2002; Pellegrini, 1990). 예를 들면, 양육스트레스로 인해 아동의 정서적, 사회적 부적응을 가져오는 과정 모델을 주장한 Ge, Conger, Lorenz, 그리고 Simons(1994)는 부모의 스트레스가 부모 자신의 우울 증상과 관련되며 이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방해함으로써 자녀의 우울 증상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한편, 부모의 역할수행에 관한 부모의 인지적 요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바람직한 양육에 필요한 부모역할 수행능력에 대한 부모 자신의 신념으로 정의되는 양육효능감이 주목받고 있다(최형성 · 정옥분, 2001; Coleman & Karraker, 1997; Goodnow & Collins, 1990). 양육효능감은 긍정적인 양육실제를 직접적으로 예언하는 변인(Brody, Flor & Gibson, 1999)으로, 또한 부모역할

수행의 질이 미치는 영향을 중재하는 변인으로 알려져 있다(김선희, 2005; Coleman & Karraker, 1997; Teti & Gelfand, 1991). 여러 선행연구들은 양육효능감이 질 높은 부모역할수행 능력 및 지지적인 환경의 제공(Luster & Rhoades, 1993),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Wells-Parker, Miller & Topping, 1990), 그리고 자녀에 대한 수용적이고 비체벌적인 양육행동과 정적인 관계를 갖는다(Coleman & Karraker, 1997)고 보고하고 있다. 반면 양육효능감이 낮은 부모는 양육실제의 효율성이 떨어져 부모역할에 수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보고된다(Coleman & Karraker, 1997; Teti & Gelfand, 1991). 따라서 자신의 양육효능감을 높게 지각하는 부모는 양육실제에 있어 더 개입적이고 민주적이며, 권위적인 양육행동 특성을 보인다(이혜승, 2003).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사회·정서적 적응력 발달과 영향요인간의 관계는 별거가족 중 별거 원인이 주로 이혼인 경우의 선행연구들에 근거한 것이었다. 이는 이혼이 편부모 가족 증가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이 때문에 보다 다양한 편부모 가족 발생의 원인에 따른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또한 부모별거 경험과 양육요인이 아동의 사회·정서적 발달에 대체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반복 확인되고 있으나, 그 영향의 정도는 아동의 발달맥락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연변 조선족은 우리와 동일한 유교문화의 전통을 가진 같은 민족이면서도 오랜 시간동안 중국 문화와의 접변을 통하여 생활양식과 의식 측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문헌 고찰 결과에 의하면 실제로 부모별거 아동 증가의 주요 원인에 차이가 있음을 알았다. 따라서 별거 사유를 위시하여 아동발달의 맥락을 조형하는 다양한 하위변인들이 연변과 한국 사회의 부모별거 아동의 사회·정서적 발달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은 어떠한지를 연구할 필요성이 시사되었다.

한중 수교 이후 국내에서 중국 조선족에 대한 연구는 사회학적·경제학적 측면과 미시적 접근으로서의 심리학적 측면에서 이루어져 왔으며(조복희·이주연, 2005), 조선족 아동과 가족에 관한 선행연구는 후자에 속한다. 조선족 가족에 대한 연구(예; 조복희·이재연·윤종희, 1993 등), 아동의 인지·언어 발달 연구(예; 박혜원·원영미·이귀옥, 2003 등)와 함께 보다 미시적인 어머니·또래·교사 환경과 아동의 사회·정서적 발달에 관한 연구들이 다수 발표되었다(이사라·박혜원, 2005; 조복희·박혜원·이사라·이주연·박민정, 2005 등).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 첫째, 최근 조선족 사회에서 급증하고 있는 부모별거 가족의 아동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으며, 조복희와 이주연(2005)은 양부모와 별거하는 아동만을 대상으로 생활환경과 적응의 문제를 연구함으로써 다양한 별거 원인을 다루지 않았다. 둘째, 아동 발달의 결과로는 학교생활 적응(예; 이사라·박혜원, 2005)이나 문제행동(조복희·이주연, 2005) 등 단편적인 측면이 주로 다루어짐으로써 보다 다면적으로 사회·정서적 적응력 발달을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나아가 부모별거 아동들의 사회·정서적 발달에 보호요인 및 위험요인이 되는 별거환경, 양육환경의 특성과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기초 연구가 시급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셋째, 연구대상의 연령에 있어서는 학령초기와 후기 모두 적응행동 문제의 해결에 중요한 시기(황혜정, 2005)이므로,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 아동의 사회·정서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연변과 한국 지역의 부모별거

가정에서 양육되는 학령기 아동의 별거경험과 그들의 양육요인은 어떠한지, 그들의 사회·정서적 적응력 발달과 별거경험 및 양육요인간의 관계, 그리고 두 요인의 사회·정서적 적응력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는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가 설정되었다.

<연구문제 1> 연변 조선족과 한국 부모별거 아동의 별거경험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연변 조선족과 한국 부모별거 아동의 양육요인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연변 조선족과 한국 부모별거 아동의 사회·정서적 적응력 발달은 어떠한가?

3-1. 별거경험이 사회·정서적 적응력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3-2. 양육요인이 사회·정서적 적응력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4> 연변 조선족과 한국 부모별거 아동의 사회·정서적 적응력의 발달에 대한 별거경험과 양육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변인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모별거 아동 : 부모의 이혼, 사망, 질병, 아동학대, 취업 등 어떠한 이유로 한 부모 또는 양 부모와 분리되어 사는 아동을 의미한다.

2. 별거 경험 : 별거가족이 된 이유(이혼, 경제적 사정 등), 별거 시작 시기의 아동 연령, 별거 기간, 별거 후 동거인(편부모, 조부모, 친척 등)을 하위변인으로 포함한다.

3. 양육요인 : 양육환경으로서, 주 양육자의 개인적 특성(아동과의 관계, 성, 연령, 교육수준, 수입), 양육의 실제 측면을 반영하는 온정·수용 및 거부·제재 양육행동, 양육의 심리적 환경을 반영하는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을 하위변인으로 포함한다.

4. 사회·정서적 적응력 : 아동이 유능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능력으로, 의미있는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적응하는 사회·정서적 기능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기능을 역으로 반영하는 문제행동, 그리고 정서적 기능을 반영하는 정서지능 변인을 포함한다.

## Ⅱ.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초등학교 1·2학년과 5·6학년에 재학하는 남아 245명, 여아 252명 등 총 502명의 부모별거 아동과 그들의 주 양육자들이었다. 연구대상 아동 중 연변 지역의 조선족 아동은 연길시 소재 2개 소학교에, 한국아동은 서울, 부산, 광주 각 지역에서 무선적으로 표집된 10개

〈표 1〉 지역별·학년별·성별 연구대상의 분포

| 지 역 | 학 년 | | | 성 | | | 계 |
|---|---|---|---|---|---|---|---|
| | 1·2학년 | 5·6학년 | 무응답 | 남 | 여 | 무응답 | |
| 연 변 | 81 | 81 | 0 | 73 | 89 | 0 | 162 |
| 한 국 | 153 | 184 | 3 | 172 | 163 | 5 | 340 |
| 전 체 | 234 | 265 | 3 | 245 | 252 | 5 | 502 |

초등학교에 재학하는 아동들 중에서 본 연구의 부모별거 아동 정의에 부합하는 아동들이었다. 즉, 어떠한 이유로 한 부모 또는 양 부모와 분리되어 사는 아동들이었다. 연구대상 아동들의 지역별 · 학년별 · 성별 분포는 <표 1>과 같다.

## 2. 연구도구

### 1) 사회·정서적 적응력의 측정도구

#### (1) 문제행동 측정도구

부모별거 아동의 문제행동을 진단하기 위해서 Rutter(1967)의 교사용 아동행동 목록표(Children's Behavior Questionnaire; CBQ)를 사용하였다. CBQ는 가정과 학교에서 아동의 행동을 진단하는 측정도구로 본 연구에서는 22개 문항이 사용되었다. 교사가 응답한 각 문항에 대해 0점~2점을 주어 총점의 범위는 0점~44점이다.

#### (2) 정서지능 측정도구

아동의 정서지능을 측정하기 위해 유아 정서지능 평정척도(김경회, 1998)의 일부 24개 문항을 추출,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유아가 또래나 교사와의 관계 속에서 보이는 자신과 타인의 정서상태에 대한 지각과 이 지각을 표현하는 방식, 나아가 감정을 조절하고, 생산적 활동에 정서를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도구이지만, 문항의 내용분석을 통해 학령기 아동의 정서지능도 측정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평정자로서 교사는 각 문항이 제시하는 정서지능 관련 내용이 아동의 행동과 일치되는 정도에 따라 5점 척도에 평정하였다.

### 2) 별거경험 및 양육요인의 측정도구

#### (1) 양육실태 조사 질문지

현재 부모별거 가정에 속한 아동의 별거경험, 즉 별거의 이유, 부모별거가 시작된 시기의 아동연령, 별거기간, 현재 누구와 동거하고 있는지 등의 하위변인들을 조사하기 위한 4개 문항이 포함되었다. 또한 양육요인의 하위변인으로서 아동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주 양육자의 아동과의 관계, 그리고 개인적 특성인 성, 연령, 교육수준, 월 평균수입을 조사하는 문항이 포함되었다. 질문지에 대한 응답자는 아동의 주 주 양육자이었다.

#### (2) 양육요인의 측정도구

주 양육자의 개인적 특성 외에 본 연구에서 양육요인의 하위변인으로 채택한 변인들은 크게 양육의 실제 측면에서의 양육행동 변인, 양육의 심리적 환경 측면에서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 변인으로 나뉜다. 두 변인의 측정에 사용된 도구는 다음과 같다.

① 양육행동의 측정

부모별거 아동이 지각하는 주 양육자의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Schaefer의 어머니 양육행동 모형을 토대로 박영애(1995)가 개발한 양육행동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척도의 하위요인 중 아동에 대한 애정표현, 온정적 태도, 수용, 존중, 이해, 긍정적 평가, 관심과 참여 등의 온정 · 수용 양육행동과, 아동에 대한 불안, 부정적 평가 또는 비난, 부정적 감정표현, 적대적 감정적 훈육, 억압 등의 거부 · 제재 양육행동을 측정하는 각각 10개, 8개의 총 18개 문항을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응답자인 아동은 자신에 대한 주 양육자의 평소 행동을 근거로 하여 그것이 문항 내용과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4점 척도에 답하였다. 총점은 18~72점 범위로 높은 점수를 얻을수록 각 특성이 높음을 의미하였다.

② 양육스트레스의 측정

부모별거 아동을 양육하는 주 양육자의 양육

〈표 2〉 사회 · 정서적 적응력 및 양육요인 측정도구의 문항 수와 문항신뢰도 계수

| 측정 변인 | 하위변인 | | 문항 수 | 문항신뢰도계수 |
|---|---|---|---|---|
| 사회 · 정서적 적응력 | 문제행동 | | 22 | .92 |
| | 정서지능 | | 24 | .93 |
| 양육요인 | 양육행동 | 온정 · 수용 | 10 | .81 |
| | | 거부 · 제재 | 8 | .83 |
| | 양육스트레스 | | 16 | .93 |
| | 양육효능감 | | 22 | .96 |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조가원(2002)의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일부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초등학교에서부터 20대까지의 자녀를 둔 편모의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편모의 양육 상황에 따른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문항의 내용이 주 양육자의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하는데 타당하다는 판단에서 선정되었다.

이 도구는 아동의 발달과 적응 문제, 자신의 정신적 스트레스와 과중한 역할부담,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사회적 낙인에 관한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주 양육자가 5점 척도에 반응함으로써 가능한 총점의 범위는 16점~80점이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주 양육자가 지각하는 양육스트레스의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③ 양육효능감의 측정

Gibaud-Wallston과 Wandersman(1978)의 양육효능감 척도를 바탕으로 최형성과 정옥분(2001)이 개발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전반적인 양육능력,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의사소통 능력, 학습지도 능력, 훈육능력 등 총 5개 요인의 37개 문항을 포함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요인별 일부 문항을 제외한 22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주 양육자가 5점 평정척도에 반응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양육실태 조사 질문지를 제외한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들의 문항 수와 문항신뢰도계수를 측정 변인별로 제시하면 <표 2>와 같다.

## 3. 연구 절차

### 1) 사전준비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도구들은 국내 선행연구를 통해 그 타당성과 신뢰도가 인정된 것이었으나 일부 도구의 경우 응답자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문항 수를 축소하였고, 연변 지역의 조선족 아동에 대한 타당성의 검토가 필요하였다. 이에 축소된 문항들로 구성된 도구들의 내용타당도를 본 연구의 한국 공동연구원들이 사전 검토한 후 연변 지역의 공동연구자로부터 그 곳 조선족 아동을 대상으로 조사하기 위한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 받아 최종 문항의 표현과 문항 수 등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잠정적인 표집의 크기는 비 비율적으로 연변과 한국 아동 수를 1대2의 비율로 하여 4개 학년에서 총 480명 정도를 표집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연변 지역의 경우는 공동연구자가 연길시의 소학교 2개교를 무선적으로 선정하여 학년별로 40명씩 총 160명의 아동을 무선적으로 선정 · 조사할 수 있도록 학교장에게 협조를 요청하였다. 한국의 경우는 지역별로 교육청 관계자와 교사들에게 부모별거 아동의 분포에 관해 문의하여 학급당 최소 1~2명의 별거아동은 있다는 안내에 따라 지역별로 2~3개씩 총 10개

초등학교를 무선적으로 선정하였다. 학교 크기에 따라 학년마다 8~10명의 아동을 무선적으로 선정·조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여 전체 대상아동이 계획보다 더 늘어났다.

### 2) 본조사의 실시

2005년 6월 1일~20일까지 본조사가 실시되었다. 이 시기는 연변 지역의 경우 해당 학년도의 2학기 말이며, 한국은 새 학년도가 시작된 지 3개월이 경과된 시기로서 교사가 아동의 행동을 관찰, 이해할 만한 시간이 경과된 시기로 판단되었다.

아동에게는 아동이 지각한 주 양육자의 양육행동을 측정하는 척도를 학교에서 실시하되 저학년의 경우는 소집단의 아동을 대상으로 교사가 문항을 하나씩 읽어주고 답하는 형식으로 실시되었다. 주 양육자에게는 양육실태 조사지와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효능감 척도를 가정으로 보내 응답 후 담임교사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담임교사는 조사대상 아동의 문제행동과 정서지능을 평가하는 척도에 반응하였다. 아동 당 아동용, 양육자용 및 교사용 척도 모두가 회수되지 않고, 무응답한 문항의 수가 현저히 많은 경우를 제외한 502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 4. 자료의 처리와 분석

<연구문제 1>, 즉 연변 조선족과 한국 부모별거 아동의 별거경험이 어떠한지를 알기 위해 별거경험의 하위변인인 별거 사유, 별거 시기, 별거 기간 및 현재 동거인의 4개 변인 각각의 범주별 빈도를 분석하고 지역 변인(연변, 한국)과의 관계를 교차분석 하였다. 이를 위해 별거 시기와 별거 기간을 각각 4개의 범주를 가진 범주변인으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연구문제 2>, 즉 부모별거 아동의 양육요인이 어떠한지를 알기위해 양육요인의 하위변인의 성격에 따라 분석을 달리 하였다. 범주변인인 주 양육자의 개인적 특성 관련 변인의 경우, 빈도분석과 지역 변인과의 관계를 알기위한 교차분석을 하였고, 연속변인인 양육행동,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변인의 경우는 각 변인의 총점을 지역별로 z점수로 변환한 후 기술적 분석과 지역에 따른 $t$검증을 병행하였다.

<연구문제 3>과 <연구문제 4>, 즉 별거 경험과 양육요인에 따른 부모별거 아동의 사회·정서적 적응력의 발달이 어떠한지, 이 변인들의 사회·정서적 적응력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이 어떠한지를 분석하기 위해 사회·정서적 적응력의 하위변인 즉 문제행동과 정서지능별로, 그리고 지역별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범주형 독립변인 중 연속성을 부여하기 어려운 별거사유, 동거인, 주 양육자 및 주 양육자의 성 등의 변인은 가변인(dummy variable)으로 변환하였다. 그리고 사전분석을 통해 문제행동과 정서지능의 각 총점이 지역별로 아동의 성과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이 변인들을 통제하고 독립변인들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독립변인을 2단계로 나누어 투입하였다. 즉 1단계에서는 아동의 성과 학년 변인을 입력 방식으로 투입하고, 2단계에서는 영향력을 알아보고자 독립변인의 하위변인들을 단계적으로 투입하였다. 그럼으로써 각 독립변인의 영향이 유의한지를 확인하되 그 영향의 정도를 아동의 성과 학년 변인의 영향력과 구분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회귀분석의 2단계에서는 연구문제3과 관련하여 별거경험, 양육요인 하위변인들이 각각 투입되었고, 연구문제4와 관련해서는 별거경험과 양육요인의 모든 하위변인들이 투입되었다. 모든 회귀분석 과정에서 Cook의

거리를 참고하여 극단치(outlier)를 2개~6개 제거하였고 독립변인간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여 다중공선성을 진단하였으며, Durbin-Watson의 d 값으로 잔차의 독립성을 확인하였다.

## Ⅲ. 연구결과

### 1. 지역별 부모별거 아동의 별거경험 분석

연변 조선족과 한국의 부모별거 아동의 별거경험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지역별로 별거경험의 하위변인별 빈도분석을 하고 별거경험 하위변인과 지역 변인과의 관계를 교차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서 보듯이, 별거 사유는 연변 조선족 아동의 경우 경제적 이유 또는 맞벌이 때문에 부모별거를 하게 된 아동의 비율이 53.7%로 가장 높았다. 부모의 이혼 또는 불화, 기타 이유로 부모와 헤어져 사는 아동의 비율은 22.2%, 21%로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부모의 사망에 따른 부모별거아동의 비율은 3.1%로 낮았다. 대조적으로 한국 아동의 경우, 부모의 이혼 또는 불화에 의한 별거 아동의 비율이 57.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부모의 사망 20.1%, 경제적 이유 또는 맞벌이 15.2%, 기타 6.6%의 순으로 별거 사유가 나타났다. 지역과 별거 사유 변인간의 교차분석 결과 유의한 관계가 있다고 밝혀졌다($\chi^2$=122.95, $p$<.001).

아동의 부모별거 시기는 지역과는 관계가 없이($\chi^2$=5.44, $p$>.05) 두 지역 모두 6~11세 때 별거한 아동의 비율이 가장 높고, 3~5세, 0~2세, 12세

〈표 3〉 별거 경험의 하위변인별 · 지역별 아동의 빈도(%)[a]와 교차분석 결과 (N=502)

| 별거 경험 하위변인 | 범 주 | 지 역 | | $\chi^2$ |
|---|---|---|---|---|
| | | 연변(n=162) | 한국(n=340) | |
| 별거 사유 | 한쪽부모 또는 양쪽부모 사망 | 5( 3.1) | 59(20.1) | 122.95*** |
| | 부모 이혼 또는 불화 | 36(22.2) | 168(57.9) | |
| | 경제적 이유 또는 맞벌이 | 87(53.7) | 44(15.2) | |
| | 기 타 | 34(21.0) | 19( 6.6) | |
| 별거 시기 | 0~2세 | 13( 8.0) | 21( 8.0) | 5.44 |
| | 3~5세 | 48(29.6) | 77(29.4) | |
| | 6~11세 | 89(54.9) | 157(59.9) | |
| | 12세 이상 | 12( 7.4) | 7( 2.7) | |
| 별거 기간 | 1년 이하 | 9( 5.7) | 40(15.6) | 20.03*** |
| | 2~3년 | 38(23.9) | 85(33.1) | |
| | 4~5년 | 47(29.6) | 64(24.9) | |
| | 6~7년 | 39(24.5) | 33(12.8) | |
| | 8년 이상 | 26(16.4) | 35(13.6) | |
| 동 거 인 | 편 부 모 | 85(52.5) | 192(64.6) | 10.68** |
| | 조부모 또는 나이든 형제 | 49(30.2) | 77(25.9) | |
| | 친 척 | 20(12.3) | 15( 5.1) | |
| | 이웃 · 부모친구 · 복지시설 · 기타 | 8( 4.9) | 13( 4.4) | |

**$p$<.01 ***$p$<.001

a. 하위변인별 빈도의 합은 무응답자의 수에 따라 다르며, %는 해당지역 내 유효빈도 백분율임.

이상의 순으로 해당 별거시기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 별거한 기간은 연변 지역 아동이 평균 56.4개월, 한국 아동이 평균 46.8개월이었다. 별거 기간을 범주변인으로 변환하여 살펴본 결과, 연변 아동의 경우 29.6%가 4~5년, 24.5%가 6~7년, 23.9%가 2~3년이었으며, 별거기간이 8년 이상인 아동이 16.4%인 것에 비해 1년 이하인 아동은 5.7%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한국 아동의 경우는 33.1%가 2~3년, 24.9%가 4~5년으로 나

〈표 4〉 주 양육자의 특성별 · 지역별 아동의 빈도(%)[a]와 교차분석 결과 (N=502)

| 양육요인 하위변인 | 범 주 | 지 역 | | $X^2$ |
|---|---|---|---|---|
| | | 연변(n=162) | 한국(n=340) | |
| 주 양육자 | 편 부 모 | 82(50.9) | 214(66.0) | 22.66*** |
| | 조부모 · 나이든형제 | 54(33.5) | 84(25.9) | |
| | 친 척 | 21(13.0) | 11( 3.4) | |
| | 이웃 · 부모친구 · 복지시설 · 기타 | 4( 2.5) | 15( 4.6) | |
| 주 양육자의 성 | 남 | 52(32.1) | 79(25.4) | 2.39 |
| | 여 | 110(67.9) | 232(74.6) | |
| 연 령 | 20대 이하 | 2( 1.2) | 7( 2.3) | 8.45 |
| | 30대 | 63(38.9) | 113(36.9) | |
| | 40대 | 39(24.1) | 106(34.6) | |
| | 50대 | 16(9.9) | 18( 5.9) | |
| | 60대 | 34(21.0) | 49(16.0) | |
| | 70대 이상 | 8( 4.9) | 13( 4.2) | |
| 교육수준 | 무 학 | 3( 1.9) | 23( 7.4) | 40.77*** |
| | 초 등 졸 | 18(11.1) | 43(13.8) | |
| | 중 졸 | 48(29.6) | 34(10.9) | |
| | 고 졸 | 65(40.1) | 155(49.7) | |
| | 전문대졸 | 21(13.0) | 22( 7.1) | |
| | 4년제대졸 | 7( 4.3) | 30( 9.6) | |
| | 대학원졸 | 0( 0.0) | 5( 1.6) | |
| 수 입[b] | 100만원 미만 (1000위안 미만) | 72(45.6) | 149(48.4) | 6.85 |
| |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1000위안 이상~2000위안 미만) | 56(35.4) | 98(31.8) | |
| |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0위안 이상~3000위안 미만) | 20(12.7) | 37(12.0) | |
| |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3000위안 이상~4000위안 미만) | 4( 2.5) | 20( 6.5) | |
| | 400만원 이상 (4000위안 이상) | 6( 3.8) | 4( 1.3) | |

***$p$<.001

a. 하위변인별 빈도의 합은 무응답자의 수에 따라 다르며, %는 해당지역내 유효빈도 백분율임.

b. 연변과 한국의 대응하는 수입 범주는 박혜원 · 박민정(2005)에 근거함.

타났으나 1년 이하(15.6%), 8년 이상(13.6%) 및 6~7년(12.8%)의 별거를 경험하고 있는 아동의 비율은 서로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과 별거 기간 간에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chi^2$=20.03, $p$<.001).

부모별거 아동이 현재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은 연변과 한국에서 편부모인 경우가 52.5%, 64.6%로 가장 높게, 그리고 이웃, 부모친구, 복지시설 종사자 또는 기타인 경우가 각각 4.9%, 4.4%로 가장 낮게 나타나 유사한 비율을 보였다. 그러나 연변 지역은 30.2%가 조부모 또는 나이든 형제, 12.3%가 친척이지만 한국에서는 25.9%가 조부모 또는 나이든 형제, 5.1%가 친척이어서 비율의 상대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지역과 동거인 변인간의 관계는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chi^2$=10.68, $p$<.01).

## 2. 지역별 부모별거 아동의 양육요인 분석

연변 조선족과 한국 부모별거 아동의 양육요인이 어떠한지 알기 위해, 먼저 양육요인의 하위변인 중 범주변인에 속하는 변인들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는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4>에서 보면, 부모와 별거한 아동의 양육을 주로 맡고 있는 주 양육자는 편부모가 연변 지역의 경우 50.9%, 한국의 경우 66.0%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변의 주 양육자는 조부모 또는 나이든 형제가 33.5%, 친척이 13.0%로 나타나 한국의 경우 25.9%, 3.4%와는 대조를 보였다. 주 양육자가 이웃, 부모친구, 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기타인 경우 연변 지역에서는 2.5%로 적었지만 한국에서는 4.6%로 상대적인 비율이 높았다. 지역과 주 양육자 변인간의 교차분석 결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22.66, $p$<.001).

한편 <표 4>에서 주 양육자의 개인적 특성으로서 성의 분포를 살펴본 결과, 연변과 한국 모두 여성의 비율(67.9%, 74.6%)이 남성의 비율(32.1%, 25.4%) 보다 높았으나, 지역 변인과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았다($\chi^2$=2.39, $p$>.05). 연령 분포 역시 두 지역에서 유사하게 나타나($\chi^2$=8.45, $p$>.05), 30대와 40대가 대다수를 차지하며 60대, 50대의 순으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주 양육자의 연령이 70대 이상인 경우가 연변 4.9%, 한국 4.2%로 유사했으며 20대 이하인 경우도 각각 1.2%와 2.3%인 것으로 밝혀졌다. 주 양육자의 교육수준도 지역 변인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chi^2$=40.77, $p$<.001). 연변 지역은 고졸(40.1%), 중졸(29.6%), 전문대졸(13.0%), 초등학교 졸(11.1%) 학력의 분포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한국의 경우는 고졸(49.7%), 초등학교 졸(13.8%), 중졸(10.9%), 4년제 대학과 대학원 졸업 이상(11.2%)의 학력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주 양육자의 월 평균수입은 지역과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chi^2$=6.85, $p$>.05), 최저 수준인 월 100만원 미만(또는 1000위안 미만)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에 차 상위 수준인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1000위안 이상~2000위안 미만)의 비율을 합쳤을 때 연변 지역은 81.0%가, 한국 지역은 80.2%가 상대적으로 수입이 적었고, 월수입이 300만원 이상(3000위안 이상)인 경우는 연변이 6.3%, 한국이 7.8%로 소수에 그쳤다.

또한 주 양육자의 양육행동의 온정 · 수용과 거부 · 제재 하위변인, 그리고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등이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Z점수로 변환된 총점 간의 차이를 $t$-검증하였다. 그 결과 4개 변인 모두 지역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별거경험과 양육요인에 따른 아동의 사회·정서적 적응력

부모별거 아동의 별거경험과 양육요인에 따라 사회·정서적 적응력의 발달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사회·정서적 적응력의 하위변인인 문제행동과 정서지능 변인별, 지역별로 두 가지 독립변인에 의한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독립변인들 간의 상호관계를 알기 위해 독립변인의 하위변인들 간의 상관계수를 산출, 검토한 결과 독립변인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먼저, 부모별거 아동의 문제행동이 별거경험, 양육요인에 의해 어떠한 발달양상을 보이는지, 즉 어떠한 하위변인들이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며 영향의 결과는 어떠한지를 알기 위해 지역별로 회귀분석한 결과는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5>와 같이 독립변인을 별거경험 변인으로 회귀분석한 결과, 연변 지역 아동의 경우 별거경험의 하위변인 중 더미7 동거인 변인, 즉 동거인이 부와(또는) 모가 아닌 이웃 · 부모친구 · 복지시설 종사자 및 기타와 같은 가족 · 친척 이외의 사람일수록 아동의 문제행동 수준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beta$=.36, $p$<.001), 이

〈표 5〉 지역별 문제행동에 대한 별거경험과 양육요인의 회귀분석 결과

| 독립변인 | 단계별 투입변인[a] | 연변 유의한 하위변인 | 연변 B | 연변 $\beta$ | 연변 R | 연변 $R^2$ | 한국 유의한 하위변인 | 한국 B | 한국 $\beta$ | 한국 R | 한국 $R^2$ |
|---|---|---|---|---|---|---|---|---|---|---|---|
| 별거경험 | 1단계 아동의성 · 학년 | 아동의성 | -5.92 | -.20** | .60 | .13 | 아동의성 | -4.35 | -.18** | .20 | .04 |
| | | 학 년 | -7.99 | -.27*** | | | | | | | |
| | 2단계 별거경험 | 동거인 (더미7)[b] | 23.67 | .36*** | .51 | .26 | 별거사유 (더미2)[b] | 4.31 | .18** | .26 | .07 |
| 양육요인 | 1단계 아동의성 · 학년 | 학 년 | -6.12 | -.23** | .35 | .12 | 아동의성 | -3.97 | -.17** | .19 | .04 |
| | 2단계 양육요인 | 주 양육자 (더미10)[b] | 20.12 | .21** | .42 | .17 | 양육스트레스 | 2.54 | .21** | .41 | .17 |
| | | 양육효능감 | 2.52 | .18** | .46 | .21 | 양육효능감 | 2.20 | .18** | .44 | .19 |
| | | 거부·제재 | 2.32 | .17* | .48 | .23 | 평균수입 | -1.70 | -.14* | .46 | .21 |
| 별거경험 · 양육요인 | 1단계 아동의성 · 학년 | 학 년 | -6.81 | -.25*** | .35 | .12 | 아동의성 | -4.99 | -.20*** | .19 | .03 |
| | 2단계 별거경험 · 양육요인 | 동거인 (더미7)[b] | 16.04 | .24*** | .43 | .18 | | | | | |
| | | 양육효능감 | 2.79 | .19** | .48 | .23 | 양육스트레스 | 4.83 | .38*** | .45 | .20 |
| | | 거부·제재 | 2.15 | .15** | .50 | .25 | 평균수입 | -1.86 | -.14* | .47 | .22 |

*$p$<.05 **$p$<.01 ***$p$<.001

a. 1단계는 투입변인의 통제를 목적으로 함.

b. 가변인 : 더미2-부와(또는) 모의 사망이 아닌 부모의 이혼 또는 불화
더미7-부와(또는) 모가 아닌 이웃, 부모친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타
더미10- 부와(또는) 모가 아닌 이웃, 부모친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타

변인에 의한 문제행동의 설명변량은 13%였다. 이에 비해 한국의 아동은 더미2 별거사유 변인 즉, 별거사유가 부와(또는) 모의 사망이 아닌 부모의 이혼 또는 불화인 경우의 아동일수록 문제행동 수준이 유의하게 높고($\beta$=.18, $p$<.01), 3%의 변량이 설명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요인에 따라 아동의 문제행동 발달이 어떠한지를 알기 위해 지역별로 회귀분석한 결과는 <표 5>에서 보듯이, 연변 아동의 문제행동은 더미10 주 양육자, 양육효능감, 거부·제재 양육행동 변인에 유의하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 양육자가 부와(또는) 모가 아닌 이웃·부모친구·복지시설 또는 기타 사람일수록 ($\beta$=.21, $p$<.01), 주 양육자의 양육효능감 점수가 높을수록($\beta$=.18, $p$<.01), 주 양육자의 거부·제재 양육행동 점수가 높을수록($\beta$=.17, $p$<.05) 아동의 문제행동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변인은 문제행동 점수를 5%, 4%, 2%씩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연변 지역의 부모별거 아동은 주 양육자가 가족과 친척 이외의 사람일 때, 주 양육자의 양육효능감이 낮을수록, 주 양육자가 거부·제재적인 양육행동을 보일수록 문제행동을 높게 보인다고 볼 수 있었다. 한국 부모별거 아동의 문제행동은 주 양

〈표 6〉 지역별 정서지능에 대한 별거경험과 양육요인의 회귀분석 결과

| 독립변인 | 단계별 투입변인[a] | 연변 | | | | | 한국 | | | |
|---|---|---|---|---|---|---|---|---|---|---|
| | | 유의한 하위변인 | B | $\beta$ | R | $R^2$ | 유의한 하위변인 | B | $\beta$ | R | $R^2$ |
| 별거경험 | 1단계 아동의성·학년 | 아동의성 | 6.54 | .18** | .42 | .18 | 아동의성 | 1.00 | .29*** | .30 | .09 |
| | | 학 년 | 12.63 | .36*** | | | | | | | |
| | 2단계 별거경험 | 동거인 (더미7)[b] | -19.90 | -.25*** | .49 | .24 | 별거사유 (더미2)[b] | -5.80 | -.17** | .34 | .12 |
| 양육요인 | 1단계 아동의성·학년 | 학 년 | 11.76 | .34*** | .39 | .15 | 아동의성 | 10.01 | .29*** | .29 | .09 |
| | 2단계 양육요인 | 주 양육자 (더미10)[b] | -23.00 | -.18** | .43 | .19 | 양육스트레스 | -4.57 | -.26*** | .45 | .20 |
| | | 양육효능감 | -2.84 | -.15* | .46 | .21 | 온정·수용 | 2.70 | .16** | .48 | .23 |
| | | | | | | | 평균수입 | 2.22 | .13* | .49 | .24 |
| 별거경험·양육요인 | 1단계 아동의성·학년 | 아동의성 | 5.20 | .15* | .40 | .16 | 아동의성 | 9.99 | .30*** | .28 | .08 |
| | | 학 년 | 11.93 | .34*** | | | | | | | |
| | 2단계 별거경험·양육요인 | 동거인 (더미7)[b] | -18.46 | -.22** | .46 | .21 | 양육스트레스 | -5.26 | -.30*** | .44 | .19 |
| | | 양육효능감 | -2.80 | -.15* | .48 | .23 | 온정·수용 | 2.44 | .15* | .46 | .21 |

*$p$<.05 **$p$<.01 ***$p$<.001

a. 1단계는 투입변인의 통제를 목적으로 함.

b. 가변인 : 더미2-부와(또는) 모의 사망이 아닌 부모의 이혼 또는 불화
더미7-부와(또는) 모가 아닌 이웃, 부모친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타
더미10- 부와(또는) 모가 아닌 이웃, 부모친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타

육자의 양육스트레스($\beta$=.21, $p$<.01), 양육효능감($\beta$=.18, $p$<.01), 평균수입($\beta$=-.14, $p$<.05)과 같은 양육요인들에 유의하게 영향을 받으며, 각 변인의 설명변량은 13%, 2%, 2%로 나타났다. 이는 주 양육자가 지각하는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을 낮게 지각할수록, 그리고 월 평균수입이 낮을수록 양육을 받고 있는 아동의 문제행동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부모별거 아동의 정서지능이 별거경험과 양육요인에 의해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를 알기 위해 지역별로 회귀분석한 결과를 살펴본 결과 <표 6>과 같았다.

먼저 별거경험요인에 있어서, 연변 아동의 정서지능은 별거경험의 하위변인 중 6%의 설명변량을 가지는 더미7 동거인 변인에 유의하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25, $p$<.001). 부모별거 아동과 동거하는 사람이 부와(또는) 모가 아닌 이웃 · 부모친구 · 복지시설 종사자 · 기타 사람일수록 아동의 정서지능은 낮다고 볼 수 있다. 한국 아동의 정서지능은 더미2 별거사유 변인에 의해 3%의 변량이 유의하게 설명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beta$=-.17, $p$<.01). 따라서 아동이 부와(또는) 모의 사망이 아닌 이혼이나 부모불화로 인해 별거한 아동일수록 정서지능이 낮다고 볼 수 있었다.

양육요인에 있어서는 연변 아동의 경우, 더미10 주 양육자 변인과 양육효능감 변인에 의해 정서지능 발달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beta$=-.18, $p$<.01; $\beta$=-.15, $p$<.05). 각 변인의 설명변량은 4%, 2%였다. 주 양육자가 부와(또는) 모가 아닌 이웃 · 부모친구 · 복지시설 또는 기타 사람인 경우, 주 양육자가 지각하는 자신의 양육효능감이 낮을수록 양육되는 아동의 정서지능은 유의하게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한국 아동의 경우, 양육요인의 하위변인 중 양육스트레스, 온정 · 수용 양육행동, 평균수입 변인이 유의한 영향 변인으로 나타났고($\beta$=-.26, $p$<.001; $\beta$=.16, $p$<.01; $\beta$=.13, $p$<.05), 아동의 정서지능에 대한 고유한 설명변량은 각각 11%, 3%, 1%로 밝혀졌다. 한국의 부모별거 아동을 주로 양육하는 사람이 지각하는 양육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온정 · 수용적인 양육행동을 보일수록, 월 평균수입이 높을수록 양육되는 아동의 정서지능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4. 아동의 사회 · 정서적 적응력에 대한 별거 경험과 양육요인의 상대적 영향력

별거경험과 양육요인 또는 그 하위변인들이 아동의 문제행동과 정서지능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표 6>에 제시되었다.

<표 5>에서, 연변 지역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해서는 부모별거 경험과 양육요인의 하위변인들 중 별거경험의 하위변인인 더미7 동거인($\beta$=.24, $p$<.001), 양육요인의 하위변인인 양육효능감($\beta$=.19, $p$<.01)과 거부 · 제재 양육행동($\beta$=.15, $p$<.05) 변인의 순으로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문제행동 설명변량은 6%, 5%, 2%였다. 아동의 문제행동은 동거인이 부와(또는) 모가 아닌 이웃 · 부모친구 · 복지시설 종사자 · 기타 사람인 경우, 주 양육자가 지각하는 양육효능감이 낮거나 거부 · 제재적인 양육행동을 보일수록 낮다고 할 수 있다. 한국 부모별거 아동의 경우는 양육요인의 하위변인인 양육스트레스와 평균수입 변인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beta$=.38, $p$<.001; $\beta$=-.14, $p$<.05). 각각의 설명변량은 17%와 2%이었다. 따라서 주 양육자가 양육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할수록, 월 평균수입이 낮을수록 양육 아동의 문제행동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아동의 정서지능은 <표 6>에서 보듯이 별거경험 중 더미7 동거인 변인, 양육요인 중 양육효능감 변인이 상대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22, $p$<.01, $\beta$=-.15, $p$<.05). 설명변량은 각각 5%와 2%이었다. 부모별거 아동과 동거하는 사람이 부와(또는) 모가 아닌 이웃·부모친구·복지시설 및 기타 사람인 경우, 주 양육자가 자신의 양육효능감을 낮게 지각할수록 양육 아동의 정서지능은 낮다고 볼 수 있다. 한국 아동의 정서지능은 양육스트레스와 온정·수용 양육행동 등의 양육요인 변인에 의한 설명력이 상대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beta$=-.30, $p$<.001; $\beta$=.15, $p$<.05). 각각 11%, 2%의 설명력을 갖는 두 변인의 영향에 의해 주 양육자가 지각하는 양육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온정·수용적인 양육행동을 보일수록 아동의 정서지능은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 Ⅳ.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연변과 한국의 부모별거 초등학생의 별거경험과 양육요인이 어떠하며, 그들의 사회·정서적 발달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문제의 순서에 따라 결과를 요약하며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별거 아동의 별거경험으로서 부모와 별거하게 된 이유를 지역별로 살펴본 결과, 연변 조선족 아동의 경우 '경제적 이유 또는 맞벌이'가 약 50%로 가장 높고 이어 '부모의 이혼 또는 불화'가 약 22%의 이유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비율은 같은 지역 조선족 소학교의 결손가정 아동 중 부모가 출국하거나 장기간 외지에 있는 아동의 비율 42.9%(부모 출국에 의한 비율 39.3% 포함) 및 부모 이혼에 의한 별거아동 비율 12.6%보다 각각 높고, 흑룡강성의 조선족 초·중등학교에서 도시진출, 해외취업에 의한 부모의 부재나 이혼으로 결손된 가정의 학생 비율 60~80%(최성학·김철화, 2004)과 유사한 것이었다. 이른바 '출국형 가정'의 가족 위기와 그로 인한 학교교육의 문제 심각성(리철민·리홍길, 2004)을 대변하는 결과로 볼 수 있었다. 한국 아동의 경우, 부모의 이혼 또는 불화에 의한 별거의 비율이 약 58%로 가장 높고, 부모의 사망이 약 20%로 두 번째 이유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변과 한국 아동의 부모별거 원인은 대조를 보였다.

부모와 별거했을 때 아동의 나이는 두 지역 모두 50~60%가 학령기에, 약 30%가 학령전기였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혼에 의한 별거시기의 영향을 다룬 Altshuler와 Ruble(1989)의 주장을 빌리면, 본 연구대상 아동들은 아직 상황대처기술이 부족하고 가정 밖 심리적 지지체제의 이용능력이 부족한 청소년기 이전이므로 부모별거 경험은 그들의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부모와 별거한 기간은 전체 평균이 50.5개월이었고 연변 아동의 평균 별거기간은 56.4개월로 나타나, 아버지, 어머니와 각각 평균 47개월 및 40개월간 별거한 조복희와 이주연(2005)의 결과보다 긴 것이다. 이 차이는 본 연구에서 부모별거의 다양한 이유를 포함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지역간 별거기간의 분포를 비교한 결과, 연변 아동의 별거기간은 한국 아동에 비해 길며[1] 1년 이하로 별거기간이 짧은 아동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었으나, 한국 아동은 6년 이상의 장기 별거와 1년 이하의 별거를 경험하고

1) 부가적으로 학년을 통제하고 지역에 따른 별거기간을 변량분석한 결과에 근거함(F=11.22, $p$<.001).

있는 경우가 비슷하였다. 별거기간 변인을 단독으로 고려할 때 부모 이혼 후 경과기간(김승경 · 강문희, 2005)이나 어머니와의 별거기간(조복희 · 이주연, 2005)이 길수록 아동의 적응에 유리하다는 결과에 비추어 한국 아동보다 연변의 별거 아동이 부모와의 별거상황에 상대적으로 적응되어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별거상황에서 현재 아동과 살고 있는 사람은 연변과 한국 모두 편부모인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가족 · 친척 외의 사람인 경우는 가장 낮았다. 그러나 연변의 경우 한국에 비해 조부모나 나이든 형제, 친척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대조를 보였다. 이는 중국 조선족 가정의 가족구조가 직계 대가족으로부터 핵가족으로 이행하고 있으나(최성학 · 김철화, 2004), 아직 그들의 약 37%는 확대가족 형태이므로 친족에 의한 지원체계가 한국 보다 더 유용한(available) 결과로 보인다. 양부모별거 아동의 대부분이 조부모를 포함하는 친척에 의해 양육된다는 보고(조복희 · 이귀옥 · 박혜원 · 이주연, 2005)도 이러한 추론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둘째, 지역별 부모별거 아동의 양육요인을 분석한 결과, 주 양육자의 아동과의 관계는 동거인의 경우와 거의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연변 아동의 경우 조부모 또는 나이든 형제, 그리고 친척이 동거인으로서 보다 주 양육자로서 역할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이 역시 친인척에 의한 대리양육의 경향이 높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한국의 경우 편부모, 가족 외 성원에 의한 주 양육이 상대적으로 약간 높은 것은 최근 이혼가정을 포함하여 양친이 모두 있지 않은 가정의 초등학생 연구에서 부모 중 한 사람과 동거하는 경우가 대부분(김승경 · 강문희, 2005; 이순형 · 이옥경 · 김지현, 2005)이며, 부모 이외의 성인 지지자가 없는 경우가 약 63%(김승경 · 강문희, 2005)라고 보고된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 가족구조가 핵가족 중심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었다. 친인척 외 이웃 · 부모친구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기타의 사람이 주 양육자인 경우가 연변 아동의 경우보다 많은 것도 가족해체 후 보호요인의 역할을 하는 확대가족 구성원이 없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생각되었다.

주 양육자의 성 분포는 두 지역 모두 여성의 비율이 남성의 비율보다 높았고, 연령 분포에서는 30대와 40대가 대다수를 차지하며, 대략 조부모 세대라고 볼 수 있는 50대 이상인 경우는 연변 약 36%, 한국 약 26%를 차지하고 있었다. 또 교육수준의 분포에서 고졸의 학력자가 가장 많고 중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 소유자가 연변 42.6%, 한국 26%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연구대상 아동이 초등학생이라는 점에서 대다수의 주 양육자가 30대와 40대 연령의 고졸 학력의 편모 또는 학력이 낮을 것으로 추측되는 조모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해 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주 양육자가 남성인 경우가 연변 32%, 한국 25% 정도로 나타난 결과는 연길시 소학교 학생의 경우 어머니가 장기간 집을 떠나있는 가정의 수가 약 30%, 아버지가 장기간 집을 떠나있는 가정수가 약 27%라는 보고(최성학 · 김철화, 2004), 한국 초등학교 이혼가정 아동의 양육자가 편부모인 경우가 유사한 수준이라는 보고(김승경 · 강문희, 2005; 이순형 외, 2005), 부모별거 아동의 양육자가 아버지인 경우가 21.5%라는 점(이은경 · 박성연, 2004)에 비추어 볼 때 어머니부재 상황에서 아버지가 주 양육자 역할을 수행하는 가정이 많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주 양육자의 수입 역시 두 지역 모두 중간수준보다 낮은 200만원(2000위안, 약 25만원) 미만인 경우가 약 80%로 나타났다. 연변 조선족 소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 연구대상의 월

평균 가계소득이 2000위안 미만인 가구의 비율이 약 74%(조복희 · 이진숙 · 한세영, 2005) 또는 51%(박혜원 · 박민정, 2005)이었고, 한국 이혼가정의 경제수준이 하류 및 중하류층에 속하는 경우가 약 35%(김승경 · 강문희, 2005; 이순형 외, 2005), 양친이 없는 가정 아동의 58%가 중하 · 하 계층(이은경 · 박성연, 2004)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의 대상 즉, 어떠한 이유로든 부모와 별거한 아동의 양육 환경은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손가정 아동에 관한 연구는 아니지만 연변 조선족과 한국의 학령전기 아동을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임연신과 현온강(2002)은 두 지역 모두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가정의 월수입이 많을수록 부모역할 갈등이 낮고 아동에게 애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인다고 하였다. 따라서 저소득층 결손가정 아동의 주 양육자가 아동 발달에 적절한 부모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양육요인 중 주 양육자의 양육행동 즉, 온정 · 수용 및 거부 · 제재 양육행동, 그리고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을 지역간 비교한 결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연변 어머니 집단간에 부모역할 만족도와 양육태도를 비교한 결과, 서로 다른 사회체제 내에서도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임연신과 현온강(2002)의 지적은 이를 뒷받침해 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부모별거 아동 양육의 실제적 · 심리적 환경은 중국과 한국이라는 거시체계 자체보다는 보다 미시적인 요인들에 의해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아동의 사회 · 정서적 적응력 발달에 대한 부모별거 아동의 별거 경험과 양육요인의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부모별거 아동의 문제행동은 지역에 따라 유의한 발달 차이를 가져오는 변인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연변 아동의 문제행동은 별거 경험의 하위변인 중 별거 시기나 별거 기간이 아닌 동거인 변인에, 양육요인의 하위변인 중 주 양육자 변인, 양육효능감 및 거부 · 제재 양육행동 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복희 · 이주연(2005)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와의 별거 기간에 따라 연변 아동의 문제행동에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부모별거 기간은 평균 56개월로 상대적으로 더 길어 별거기간의 장단에 따른 문제행동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동거인과 주 양육자 변인 모두 부와(또는) 모 및 가족 · 친척 외의 사람인 경우 문제행동 수준을 높게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었다. 중국 조선족 사회의 많은 가정이 대가족 형태를 띠며, 아동의 사회화 과정에서 부모와 확대가족 구성원에 대한 존중 · 지지를 강조하는 경향(이사라 · 박혜원, 2005)이 있고 대리양육을 맡고 있는 확대가족 구성원이 주 양육자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음(조복희 · 이주연, 2005)에 비추어 볼 때, 주 양육자가 확대가족의 구성원조차도 아닌 경우, '교육기능 결핍' 또는 '교육기능 불건전'(최성학 · 김철화, 2004) 등으로 아동의 부적응적 행동의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 양육효능감은 긍정적인 양육실제와 밀접히 연관되고(Brody et al., 1999), 양육효능감을 낮게 지각할수록 양육자로서의 역할에 수동적으로 대처하며(Coleman & Karraker, 1997; Teti & Gelfand, 1991), 권위적인 양육행동을 보이지 못한다(이혜승, 2003)는 지적은 연변 아동의 문제행동 수준에 대한 양육효능감과 거부 · 제재적 양육행동의 영향을 설명해 줄 수 있다. 양육효능감을 낮게 지각하고 거부 · 제재적인 양육행동을 보이는 양육자의 자녀가 문제행동을 더 많이 보이고 원만한 사회관계를 보이지 못하며 타인

에게 이로운 행동을 하지 못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예; 하영희, 2003; Eisenberg & Valiente, 2002)와 같은 결과이다.

한국 부모별거 아동의 문제행동은 별거 경험의 하위변인 중에서는 별거 사유 변인, 양육요인의 하위변인 중에서는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그리고 평균수입 변인에 의해 각각 유의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별거사유가 부와(또는) 모의 사망이 아닌 부모 이혼 또는 불화인 경우 문제행동 수준이 높다는 것은 양친부재의 원인이 이혼 또는 별거인 경우 정서·행동문제가 많이 나타난다는 결과(이은경·박성연, 2004)와 일관된 것으로, 이혼과 같은 고 위험의 스트레스는 아동을 위험요인에 많이 노출시킴으로써(김승경·강문희, 2005) 부적응적인 행동문제의 출현 가능성을 높인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거의 시기나 별거기간 변인의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본 연구대상인 한국 아동의 평균 별거기간이 약 4년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이는 정서·행동문제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2년 미만이나 10년 이상의 별거 기간(이은경·박성연, 2004; 조복희·이주연, 2005; Amato & Booth, 1991)에 해당되지 않아, 비록 어렸을 때 별거를 경험했다 하더라도 일상적인 생활사건에의 대처에서 보이는 행동이 안정되게 나타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주 양육자의 양육요인으로서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이 아동의 문제행동과 관계된다는 결과는 주 양육자가 양육에 따른 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하며 자신의 부모역할 수행의 효율성을 낮게 지각하면 아동의 사회적 부적응을 결과한다(Ge et al., 1994)는 지적에 비추어 수용될 수 있었고, 한국 아동의 부모별거 환경에서 이러한 심리적인 양육환경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흥미로운 것은 주 양육자의 평균수입이 낮을수록 아동의 문제행동 수준이 높게 나타난 점이었다. 조선족 사회의 획일적인 사회주의가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조선족 아동의 문제행동은 가계소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나(조복희 외, 2005), 한국의 경우 양부모 부재 시 자녀에게 투자할 경제적 자원이 부족하면 양육 아동의 적응과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은경과 박성연(2004)의 연구결과와 일치되는 결과로서 Klein과 Beller(1988)의 경제적 결핍 관점을 지지하는 것이다.

한편, 부모별거 아동의 별거 경험과 양육요인에 따른 정서지능의 발달을 살펴본 결과, 연변 아동의 정서지능은 동거인, 주 양육자 및 양육효능감 변인에 의해, 한국 아동의 정서지능은 별거사유, 양육스트레스, 온정·수용 양육행동 및 평균수입 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영향 변인의 설명변량도 유사한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이 같은 결과로부터 정서지능이 문제행동의 발달에 유의한 변인들과 유사한 변인들로부터 유사한 수준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변 아동의 경우, 연변 조선족 사회의 가족구조적 특성(조복희·이주연, 2005)으로 인해 부와(또는) 모가 아닌 가족·친척 외의 사람에 의한 대리양육과 동거 즉, 가족분리경험이 주는 부정적 영향이 다른 문화권에 비해 더 크며(Suzrez-Orozco, Todorova & Louie, 2002), 시설보호 아동이 부모와의 분리경험으로 인한 정서적 결핍으로 일반아동에 비해 정서조망 능력이 낮다(권세은·이순형, 2002)는 연구결과로 미루어 볼 때, 가족이나 친척 이외의 사람과 동거하는 것은 연변 아동의 정서지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비교적 우울하고 정서변화가 심하며, 또래들과의 교제를 꺼리며 고독감에 빠져있는 소학교와 중학교 결손가정

아동의 지도를 위해 주 양육자들을 대상으로 아동발달의 이해, 심리적 건강에 유익한 가정환경 조성 및 부모역할 방법 등을 교육하여 지도 효과를 높일 수 있었다는 현장교육사례(리철민 · 리홍길, 2004)는 정서지능과 주 양육자의 양육효능감 간의 연관성을 잘 대변하고 있다.

한국 아동의 정서지능 발달은 별거경험 중 별거사유 변인에 의해, 구체적으로는 부모의 사망이 아닌 이혼 또는 불화에 의해 부모와 별거하게 된 경우 그 발달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 사망보다는 이혼이나 불화가 주 양육자로 하여금 배우자에 대한 적개심과 분노 등을 아동에게 표출하게 하고, 그 결과 아동이 문제행동뿐 아니라 정서적 문제를 보이게 된다는 주장(이은경 · 박성연, 2004)에 근거하여 이해될 수 있다. 양육요인의 하나인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또한 양육자가 온정적 · 수용적인 양육행동을 보이지 못할수록 아동의 정서지능 발달수준이 낮은 결과는 이혼을 비롯한 대리양육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주 양육자가 받는 과도한 양육스트레스가 부정적인 양육행동의 수행가능성을 높여 아동의 심리적 복지에 부정적인 영향(이순형 외, 2005)을 준 결과로 생각된다. 온정적 · 수용적인 양육행동의 중요성을 지지하는 연구로는 양 부모 부재 아동의 정서적 문제가 양육자의 비애정적 양육태도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이은경과 박성연(2004)의 연구,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자율적일수록 정서지능이 높다는 박영애 등(2000), 안현지(1999) 등의 연구가 있다. 주 양육자의 평균수입이 높을수록 아동의 정서지능 발달수준이 높았던 결과는 주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이 아동에게 권위주의적, 강압적이며 제한적인 양육태도를 보일 가능성을 높여, 아동의 대인관계에서 정서의 인식, 정서의 조절과 통제, 타인과 자신의 정서 이해 등의 정서적 적응능력 발달 수준이 낮아진 때문(Dunn & Brown, 1994; Goleman, 1995)으로 해석되었다.

부모별거 아동의 사회 · 정서적 적응력 발달과 별거 경험 및 양육요인간의 관계는 그 영향력을 상대적으로 비교한 결과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났다. 즉, 연변 아동의 사회·정서적 적응력은 동거인이 가족 · 친척 외의 이웃 · 부모친구 ·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또는 기타 사람인 경우 가장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받으며, 주 양육자의 양육효능감이 낮을수록 역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 아동의 사회 · 정서적 적응력은 양육자의 양육스트레스 정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상대적으로 가장 크게 받고, 추가적으로 문제행동은 주 양육자의 평균수입에, 정서지능은 온정 · 수용적 양육행동의 영향을 받았다. 별거경험과 양육요인 변인군을 분리하여 각각의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와 달리 일부 변인의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것은 독립변인간의 상관관계에 의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주목되는 바는, 연변 아동에게는 그들을 양육하며 함께 사는 사람이 누구인지와 주 양육자가 지각하는 자신의 양육 효율성이, 한국 아동의 경우는 부모별거의 이유와 아동을 양육하는 사람의 심리적 및 행동적 특성과 함께 가정의 경제적 지위가 사회 · 정서적 발달에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아동의 사회·정서적 적응력 발달 이해에 있어 지역에 따른 차이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두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아동의 사회 · 정서적 발달에 대한 양육요인으로서의 심리적 · 행동적 양육환경의 중요성과 그 영향의 방향이 확인된 것은, 비록 두 지역의 사회체제가 다르나 같은 아시아 문화권에 속하므로 아동과 청소년의 사회화 과정에서 양육자의 역할이 다를 수 없음(이사라 · 박혜원, 2005)을 지지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지역에

따른 차이에 초점을 둘 때, 연변 아동의 경우는 동거인이 가족·친척이 아닌 경우에 받게 되는 부정적인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옥경희(2005), Dubowitz와 동료들(1994), Dubowitz와 Sawyer(1994) 등도 조부모나 친족에 의해 양육되는 아동의 사회적응력 발달이 양부모의 양육을 받는 아동 보다는 부정적이지만 타인에 의한 대리양육을 받는 아동보다는 더 긍정적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 이에 부모와 별거하고 가족·친척도 아닌 타인과 동거함으로써 아동이 갖게 되는 유기로 인한 분노와 불안, 대상 상실로 인한 슬픔, 부모와의 지속적 유대를 바라는 욕구, 위기감 등(김기환, 1996, 현은민·박혜영, 2005, 재인용)이 사회·정서적 적응력 발달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한편, 경제적 결핍 관점에서는 편부모 가족구조와 자녀의 적응 및 발달 사이의 부정적인 상관관계는 낮은 수입에 의한다고 주장(Klein & Beller, 1988)하고 있으나, 연변과 한국에서 공통적으로 평균수입 변인의 유의한 영향력이 발견되지는 않았다. 이는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었다. 연변 조선족 사회에서 이혼 등에 의한 편부모 가정의 증가, 개방과 경제발전에 따른 급속한 변화로 아동의 양육에 있어 경제적 여유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졌으나 일면 그 부작용이 더 크게 부각되고 있다. 최성학과 김철화(2004)는 출국이나 타 지역으로의 진출에 의한 이산가족들의 수입이 높을수록 오히려 연변 부모들은 자녀에게 물질 보상의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려 하고 그 결과 자녀들은 과소비를 일삼고 불건전한 도덕관념과 인격이 형성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인 연변 아동 중에 경제적 이유 또는 맞벌이 때문에 부모와 별거한 아동이 가장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연변지역 아동 가정의 경제적 지위는 양면적으로 사회·정서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유의한 영향 요인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대조적으로 한국 사회는 시장경제 체제가 안정적으로 작용하는 상태에서 경제적 결핍 관점과 일관되게, 특히 사회·정서적 적응력의 부정적인 측면인 문제행동의 발달이 가정의 경제적 지위에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아동의 사회·정서적 적응력의 발달에 있어 성과 학년 변인의 영향을 통제함으로써 그 두 변인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회귀분석 결과 나타난 각 변인의 설명변량을 고려할 때 아동의 성, 학년 또는 연령과 같은 아동 개인 변인이 연변과 한국 모두 부모별거 아동의 사회·정서적 적응력의 발달에 중요 역할을 하며, 영향의 방향은 문제행동과 정서지능의 발달에 관한 선행연구들(예; 권민균 외 11인, 2005; 조복희·이주연, 2005)의 결과와 일관됨을 알 수 있었다. 연변 아동의 경우는 성과 학년 모두가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며, 그 영향력은 두 변인의 영향력을 통제한 후 투입된 독립변인 중 제1 영향 변인의 영향력보다 상대적인 크기는 작지만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대조적으로 한국의 경우는 아동의 성 변인이 일관되게 모든 회귀분석에서 유의한 변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그 영향력은 연변 아동의 학년 단일 변인 또는 학년과 성 두 변인의 영향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였다. 따라서 두 지역의 부모별거 아동의 사회·정서적 발달에서 이러한 변인들에 주목하되, 특히 연변 아동의 사회·정서적 적응력에 있어 이 두 변인 및 본 연구에서 다루어진 유의한 영향 변인들 간의 관계 탐색이 추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를 통하여 중국 조선족과 한국에 거주하는 다양한 부모별거 상황의 아동들은 같은 민

족이나 서로 다른 지역문화에 속함으로써 그들의 사회·정서적 적응력 발달에 영향을 주는 변인이 다르다는 결론을 얻었다. 그러나 그들의 사회·정서적 적응력의 발달에 대한 이해에는 지역 및 부모별거라는 형태적 결손 가족구조 자체보다는 미시적인 양육환경이 보다 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연변 조선족 사회와 한국 사회의 부모별거 아동의 사회·정서적 발달을 돕기 위한 다양한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에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권민균 외 11인(2005). **아동발달**. 서울 : 창지사.

권세은·이순형(2002). 시설보호 아동과 일반아동의 사회적 기술, 정서조망 능력의 비교. **아동학회지**, **22**(2), 107-120.

김경회(1998). 교사용 유아 정서지능 평정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선희(2005). 유아의 탄력성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의 영향. **유아교육연구**, **25**(4), 191-209.

김승경·강문희(2005). 이혼 가정 아동의 탄력성에 대한 위험-보호요인들 간의 경로분석. **아동학회지**, **26**(1), 261-278.

리봉월(2003, 7, 9. 연변일보). 조선족 결손가정 학생들에 대한 심리건강 교육.

리철민·리홍길(2004). **단친무친학생 교육지남**. 연변 : 연변교육출판사.

박영애(1995). 부모의 양육행동 및 형제관계와 아동의 자존감과의 관계. 고려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영애·최영희·박인전(2000). 아동의 정서지능과 자아존중감의 특성 및 상호 관계. **아동학회지**, **21**(3), 5-23.

박주희(2000). 아동의 또래 유능성에 관련된 어머니의 양육목표, 양육행동 및 또래관계 관리전략.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혜원·박민정(2005). 연변 지역의 조선족과 한족 및 한국 아동의 기질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43**(3), 221-231.

박혜원·원영미·이귀옥(2003). 중국 조선족과 한국 아동의 읽기교과서 내용분 석 : 생태학적 체계에 따른 가치덕목의 비교. **아동학회지**, **24**(4), 55-69.

박혜원·이사라(2005). 부모, 또래 및 교사가 아동의 자아개념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문화적 비교 연구 : 한국과 중국 심양 조선족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6**(1), 169-182.

안현지(1999). 부모의 양육태도와 정서 지능의 관계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연길시 교육과학연구소(2003). **기초교육 교연실 통계자료**.

오승환(2001). 결손가족 청소년의 적응 결정요인에 관한 비교연구 : 부모 이혼·별거가족과 사망가족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17**(1), 99-125.

오영미(1997).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제주대학 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오은순(1997). 이혼가정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들의 구조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옥경희(2005). 조부모-손자녀 가족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4), 55-65.

우수경·최기영(2002). 유아의 정서능력과 관련변인 간의 구조 분석. **유아교육연구**, **2**(2), 29-55.

유안진·한유진·김진경(2003). 시설 보호 아동의 또래관계 증진을 위한 사회 적 역량 프로그램의 효과. **아동학회지**, **24**(2), 109-121.

이광자(1997).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감성지수와의 관계연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사라·박혜원(2005). 중국 조선족 아동의 어머니와의 애착이 자아개념, 또래 관계 및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3**(9), 109-127.

이선경·이재연(1998).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

치는 위기요인과 보호요인 의 이론적 과정 모델. **아동학회지, 19**(2), 49-64.

이순형 · 이옥경 · 김지현(2005). 이혼가정 아동의 우울과 불안 판별 연구 : 자기 효능감, 또래애착, 부모 자녀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1), 99-111.

이은경 · 박성연(2004). 양친이 안 계신 가정 아동의 정서 · 행동문제에 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2**(12), 191-204.

이혜승(2003).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부모역할수행과의 관계 : 재미동포 한인 1 세대 부모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24**(3), 57-71.

임연신 · 현온강(2002). 한국과 연변조선족 어머니의 부모역할 만족도 및 양육 태도 비교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0**(11), 23-37.

정옥분(2002). **아동발달의 이해**. 서울 : 학지사.

정현숙(1993). 부모의 이혼에 따른 자녀들의 적응. **아동학회지, 14**(1), 59-75.

조가원(2002). 편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복희 · 박혜원 · 이사라 · 이주연 · 박민정(2005). **중국 조선족 아동의 사회 성·정서발달과 사회적 영향 요인**. 부산 : 서림출판사.

조복희 · 이귀옥 · 박혜원 · 이주연(2005). 중국 조선족 가정의 문화접변 실태 : 연변지역과 심양/할빈지역 비교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3**(8), 37-54.

조복희 · 이재연 · 윤종희(1993). 연변지역 조선족의 가족생활 및 육아방식의 실태조사. **대한가정학회지, 31**(1), 35-44.

조복희 · 이주연(2005). 부모와 별거하는 중국 조선족 아동의 생활환경과 적응 문제. **아동학회지, 26**(4), 231-245.

조복희 · 이진숙 · 한세영(2005). 연변 조선족 아동의 가정환경, 내외통제성 사 회적 지지 및 행동문제 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3**(3), 91-104.

주소희(2002). 이혼가정자녀의 부모 이혼 후 심리사회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개 발 및 효과성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9**(9), 77-106.

중앙일보(2003, 7, 28). 전남 초등학교 절반 이상 결손가정 학생 10% 넘어 교사들 "교육 무관심 심각".

최성학 · 김철화(2004). **21세기 초 조선족 교육의 문제 및 개혁 연구**. 연구자 료 RM 2004-73,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최형성 · 정옥분(2001).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척도의 개발. **아동학회지, 22**(3), 1-15.

통계청(2002a). **혼인-이혼 통계발표**.

통계청(2002b). **통계자료 : 시도/세대구성/아동보육 상태별 아동 수**.

하영희(2003). 개인변인과 환경변인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4**(4), 29-40.

한경혜(1997). 아버지상의 변화. 여성한국사회연구회 편. **남성과 한국사회**. 서울 : 사회문화연구소. 33-52.

현은민 · 박혜영(2005). 시설보호 아동 · 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1), 19-29.

황혜정(2005). 유아의 문제행동 진단을 위한 부모용 · 교사용 검사 개발 연구. **유아교육연구, 25**(2), 235-257.

황혜정 · 김경희 · 이혜경 · 어주경 · 나유미(2003). **아동과 환경**. 서울: 학지사.

Altshuler, J. L., & Ruble, D. N.(1989). Developmental change in children's awareness of strategies for coping with uncontrollable stress. *Child Development, 60*(6), 1337-1349.

Amato, P. R.(1993). Children's adjustment to divorce : Theories, hypotheses, and empirical support.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5*(1), 23-38.

Amato, P. R., & Booth, A.(1991). The consequence of divorce for attitudes toward divorce and gender role. *Journal of child Family Issues, 12*(3), 306-322.

Amato, P. R., & Keith, B.(1991). Parental divorce and the well-being of children : A meta-analysi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1*(2), 557-573.

Brody, G. H., Flor, D. L., & Gibson, N. M.(1999). Linking maternal efficacy beliefs, developmental goals, parenting practice and child competence in

rural single African American families. *Child Development, 70*(5), 1197-1208.

Bronfenbrenner, U.(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Boston, MA : Harvard University Press.

Cassidy, J., Parke, R., Butkosky, L., & Braungart, J. M.(1992). Family-peer connections : The roles of emotional expressiveness within the family and children's understanding of emotions. *Child Development, 63*(3), 603-618.

Coleman, P. K., & Karraker, K. H.(1997). Self-efficacy and parenting quality : Findings and future applications. *Developmental Review, 18*(1), 47-85.

Dannison, L., & Smith, A.(2003). Custodial grandparents community support program : Lesson learned. *Children & Schools, 25*(2), 87-95.

Darling, N., & Steinberg, L.(1993). Parenting style as context : An integrative model. *Psychological Bulletin, 113*(3), 487-496.

Demo, D. H., & Cox, M. J.(2000). Families with young children : A review of research in the 1990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2*(4), 876-895.

Downey, D. B.(1994). The school performance of children from single-mother and single-father families : Economics or interpersonal deprivation? *Journal of Family Issues, 15*(1), 129-147.

Dubowitz, H., Feiglemaan, S., Harrington, D., Starr, R., Zuravin, S., & Sawyer, R.(1994). Children in kinship care : How do they fate?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16*(1-2), 85-106.

Dubowitz, H., & Sawyer, R.(1994). School behavior of children in kinship care. *Child abuse and Neglect, 18*(11), 899-911.

Edwards, O. W.(1998). Helping Grandkin-grandchildren raised by grandparents : Expanding psychology in the schools. *Psychology in the Schools, 35*(2), 173-181.

Eisenberg, N., & Valiente, C.(2002). Parenting and children's prosocial and moral development. In M. H. Bornstein(Ed.), *Handbook of parenting,* Vol. 5 : Practical issues in parenting(2nd ed., pp. 111-142). NJ : Lawrence Erlbaum.

Garbarino, J., & Vondra, J.(1987). *Psychological maltreatment of children and youth.* NY : Pergamon.

Ge, X., Conger, R., Lorenz, F., & Simons, R.(1994). Parent's stress and adolescent depressive symptoms : Mediating processe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5*(1), 28-44.

Goleman, D.(1995). *Emotional intelligence : why it can matter more than IQ.* NY : Bantam.

Goleman, D.(1998). *Working with emotional intelligence.* London : Bloomsbury.

Goodnow J. M., & Collins, W. A.(1990). *Development according to parents.* Englewood Cliffs, NJ : Lawrence Erlbaum.

Hetherington, E. M.(1989). Divorce : A child's perspective. *American Psychologist, 34*(10), 851-858.

Honig, A. S., & Wittmer, D. S.(1994). Encouraging positive social development in young children. *Young Children, 49*(5), 4-12.

Katz, L. G., & McClellan, D. E.(1997). *Fostering children's social competence : The teacher's role.* The NAEYC Research into Practice Series, Vol. 8. Washington, D.C. : NAEYC.

Kelly, J. B.(1989). Longer-term adjustment children of divorce.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 119-140.

Kelly, J. B., & Wallerstein, J. S.(1979). Children of divorce. *The National Elementary Principal, 59*(1), 51-58.

Klein, S. F., & Beller, A. H.(1988). Education of children from single-parent families : Differences by exposure, gender and race. *Demography, 55,* 221-224.

Kropf, N. P., & Burnette, D.(2003). Grandparents as family caregivers : Lessons for intergenerational education. *Educational Gerontology, 29*(4), 361-372.

Luster, T., & Rhoades, K.(1989). The relation between child-rearing beliefs and the home environment in a sample of adolescent mothers. *Family Relations,*

*38*(3), 317-322.

Mills, R., & Rubin, K. H.(1993). Parental ideas as influences on children's social competence. In S. Duck(Ed.), *Learning about relationships*(pp. 98-117). Newbury Park, CA : Sage.

Parker, J. G., & Asher, S. R.(1987). Peer relations and later personal adjustment : are low accepted children at risk? *Psychological Bulletin, 102*(3), 357-389.

Patterson, C. J., Kupersmidt, J. B., & Griesler, P. C.(1990). Children's perceptions of self and of relationships with others as function of sociometric status. *Child Development, 61*(5), 1335-1349.

Pellegrini, D. S.(1990). Psychosocial risk and protective factors in childhood. *Developmental and Behavioral Pediatrics, 11,* 201-209.

Pruchno, R. A.(1999). Raising grandchildren : The experience of Black and White grandmothers. *The Gerontologist, 39*(2), 209-211.

Putallaz, M., & Heflin, A. H.(1990). Parent-child interaction. In S. R. Asher & J. D. Coie(Eds.), *Peer rejection in childhood*(pp. 189-216). Cambridge. England : Cambridge University Press.

Rohner, R. P.(1986). *The warmth dimension foundations of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theory*. Beverly Hills. CA : SAGE.

Rutter, M.(1967). A children's behavior questionnaire for completion by teacher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8,* 1-11.

Sawyer, R., & Dubowitz, H.(1994). School performance of children in kinship care. *Child Abuse and Neglect, 18*(7), 587-597.

Smith, A., Dannison, L., & Vacha-Haase, R.(1998). When 'grandma' is "mom" : What today's teachers need to know. *Childhood Education, 75*(1), 12-16.

Suzrez-Orozco, C., & Todorova, I. L. G., & Louie, J. M. C. P.(2002). Making up for lost time : The experience of separation and reunification among immigrant families. *Family Process, 41*(4), 625-643.

Teti, D. M., & Gelfand, D. M.(1991). Behavioral competence among mothers of infants in the first year : The mediational role of maternal self-efficacy. *Child Development, 62*(5), 918-929.

Wells-Parker, E., Miller, D. I., & Topping, J. S.(1990). Development of control-of-outcome scales and self-efficacy scales for women in four life role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4*(3/4), 564-575.

2005년 12월 31일 투고 : 2006년 3월 8일 채택